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The Effectiveness of the Embodiment Method Based on Confucian Mind
Theory on the Children's Basic Life Habits and Autonomy

강 혜 원*

Kang, Hye Won

유 권 종**

Yoo, Kwon Jong

박 충 식***

Park, Choong Shik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for the educational method developing morality of the preschool children. For this purpose, the embodiment method based on Confucianism was conceptualized and compared with the existing methods of instruc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by dividing into 3 groups such as embodiment group, discussion group and usual group with 161 subjects of 4~5 years old preschool children. Six week program was composed from 「Yangjungpyon(養正篇)」 and was compared to the curriculum of kindergarten and primary school as the educational content.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Confucian method, the Test of Basic Life Habituation and Autonomy Rating Scale were used. The result showed that the embodiment group which followed the present method was more effective than the other two groups of existing usual methods in both ages.

Key Words : 유교 심성론(confucian mind theory), 양정편(Yangjungpyon), 체화방법(embodiment method), 토의방법(discussion method), 기본생활습관(basic life habits)

* 접수 2001년 9월 30일, 채택 2001년 11월 3일

* 서라벌대학 유아교육과 조교수, E-mail : kjkhw@sorabol.ac.kr

** 중앙대학교 철학과 부교수

*** 영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부교수

I. 문제의 제기

현대사회는 고도의 산업화와 정보화를 추구하며 급격한 물질적, 외형적 발전을 이루고 있지만, 그 반작용으로 가치관의 혼란, 탈 도덕적 병리현상 등 여러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특히 핵가족화, 취업모 증가, 결혼가정 확대 등 가족구조의 변화와 입시경쟁으로 인한 지식중심의 학교교육으로 인해 전통적인 가치관과 규범이 혼란스럽게 되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윤리의식이 요청되고 있다. 즉 가정과 학교에서 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도덕교육을 통해 올바른 인성을 길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자주 제기되고 있으며 각급 학교에서도 도덕교육을 위한 방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유아교육의 경우 1969년 제 1차 유치원교육과정에서부터 2000년 3월부터 시행중인 제 6차 유치원교육과정에 이르기까지 각 교육과정마다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도덕성의 함양 또는 도덕교육의 강화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특히 제 5차 교육과정부터는 특정 영역만이 아니라 전 생활영역에서 유아의 기본습관과 태도를 형성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강조하였고, 제 6차 교육과정에서는 기본생활습관 및 협동적인 생활태도의 함양을 개정 중점방향의 하나로 강조하였다. 즉 21세기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할 건전한 인성과 창의성을 계발하려면 무엇보다도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교육을 충실히 해야 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태도 및 인간 존중의 가치관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교육부, 1998 : 29).

본 연구는 이러한 중요성을 갖는 유아의 도덕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방법을 모색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통적인 유교 예 교육에서 중시되어온 교육방법에 관심

을 두었다. 유교의 禮에 바탕을 둔 修身교육은 心身 양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는 전통적인 인격형성방법으로 인정되어 왔기 때문에 도덕교육에 관해 축적된 우수한 노하우로서 현대인의 도덕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물론 현대의 학교교육에서 기본적인 예절교육이나 도덕교육이 관례적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지만, 그 방법의 효용이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연구들은 많지 않다. 또한 최근 아동의 인지발달, 도덕적 추론능력의 배양에 목표를 두고 있는 교육방법들이 실시되고 있고, 도덕적 추론능력의 배양이 도덕적 행동으로 연결된다고 전제하지만(정재순, 1997) 이를 구체적으로 검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교적 심성론에 근거한 전통적인 예 교육방법을 현대의 교육현장에 응용함으로써 도덕적 사고와 행동을 함께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교 禮에 바탕을 둔 修身교육에서의 교육방법을 체화방법(embodiment method)이라고 정의하였다. 체화방법은 ‘예 덕목들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여 예가 체화된 마음을 형성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예 교육이란 예절을 익혀서 규범에 순응하고 질서를 자율적으로 지키는 인간으로 육성한다는 기본취지를 지니고 있지만 그 의의와 가치는 여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유교 예 교육의 궁극적 목적은 공자와 같은 성인, 군자의 인격을 지향하는 것이다. 성인이란 仁의 德을 體得하여서 어느 상황에서도 그 仁이 즉각적·자발적으로 발휘되도록 하고, 그것으로써 생을 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유권중·박충식, 2000). 이러한 예 교육의 목적의식을 평가레트는 다음

과 같이 표현하였다. 예는 인간적 충동의 완성, 즉 충동의 문명적 표현이지 결코 형식주의적인 비인간화가 아니다. 예를 학습하게 되면 제례와 같은 신성한 의식의 현장에서나 혹은 일상생활의 현장에서나 그 상황에 맞는 행위가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 발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억지 없이 자연스럽게다는 말을 “기계적” 또는 “자동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자발성”이 발휘됨으로써 예식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진지하고 성실하게 몸과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예식에는 생명력이 있으며, 그러한 생명력으로 인해서 외부적·타율적 강제력 없이도 예식에 참여하는 개개인들이 서로 서로 한마음이 되어 협조하는 미묘함과 놀라운 복잡성이 존재하는 것이다(허버트 핑가레트, 1993 : 29~32). 또한 바레리는 유교의 예 교육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오늘날 서구인들은 그들의 도덕교육에 있어서 양성해야 하는 도덕적 능력을 이성 즉 사고의 힘에 두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현대의 인지과학은 인간의 도덕실천 능력의 중요한 기반을 이성적 추론능력에서 찾지 않고 이성적 추론능력보다 더 근원적인 것으로 ‘수시로 변화하면서 닦쳐오는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하는 숙련된 대응방식(immediate coping)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에서 구한다. 인지과학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의 도덕적 행위에서 이성적 추리란 항상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익숙한 관습이 통용되지 않을 때 혹은 특정 상황의 전개로 갈등상황에 처할 때야 비로소 작동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상의 경우 이성적 추리보다는 경험에 의해 익혀진 즉각적인 대응방식들의 비중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즉각적 대처능력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고하는 방법만 알아서 되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장기간에 걸친 반복학습에 의한 습관화를 통해 사고와 행위가 함께 긴밀한 상호관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발휘되는 윤리의 노하우(ethical know-how)로서 즉각적인 대처능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Varela, 1999 : 23~25).

이런 면에서 우리가 흔히 유교의 예 교육에 대해 가지는 고정관념, 즉 예절을 행동적 습관(형식)으로만 간주하고, 이러한 외현적 행동이 나타나기까지 작용한 내재적 측면(의식)을 간과하는 관점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즉 예는 형식과 의식의 조화인 것이다. 예는 형식만능 또는 무형식을 용인하지 않는 동시에, 선한 마음을 적절한 형식으로 세련되게 나타내는 것 모두를 포함한다.

이러한 입장은 『예기(禮記)』옥조편(玉藻篇)에 나오는 군자다운 아홉 가지 용모(九容)와 『논어(論語)』계씨편(季氏篇)에 나오는 아홉 가지 생각하는 태도(九思)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 특히 아홉 가지 생각하는 태도¹⁾는 예절이 단순히 행동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하여야 하는 가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마음의 형성과 관련된 심신단련 학습과정·방법’임을 말해준다. 즉 단순히 특정행

1) 視思明(무엇인가 대상을 바라볼 때는 명확하게 보기를 생각한다), 聽思聰(무엇인가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분명하게 알아듣기를 생각한다), 色思溫(자신의 얼굴 색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는 항상 온화하게 하여서 화나고 매섭게 하는 기색이 없도록 하기를 생각한다), 貌思恭(몸가짐은 공손하고 단정하게 하기를 생각한다), 言思忠(말을 할 때는 거짓이나 속임이 없는 충실하고 믿음직한 말을 하기를 생각한다), 事思敬(일을 할 때는 그 일에 마음을 다 쏟고 신중히 행하기를 생각한다), 疑思問(의문이 날 때는 질문할 것을 생각한다), 忿思難(성이 날 때는 그 마음을 스스로 누를 것을 생각한다), 見得思義(이득이 되는 것을 보면 사람간에 옳은 처신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한다).

동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몸에 익혀서 그 방법으로 어떠한 상황이든지 응대할 수 있도록 체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교적인 교육방법은 고전 속에서 언급되어 왔을 뿐 경험적으로 연구된 경우가 없다. 즉 지금까지의 유교 예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의 문헌들을 토대로 전통적 유교교육이 현대의 교육에 주는 의의를 논하거나(이건인·송순, 1994; 최경순, 1997) 현 교육과정에 나타난 전통적인 교육내용을 분류, 분석하는 연구들(문미옥·류철선, 2000; 이경무, 1999)이었다. 문미옥과 류철선(2000)은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을 분석한 논문에서 아동교육방법을 지행합일·자기조절교육·탐구학습·단계적 학습·구성주의적 모방학습·경전 들려주기로 구분하였다. 이 중 지행합일이란 아동을 교육하는 데 일상생활의 작고 가까운 것을 실천하는 행동을 먼저 가르치고 자라감에 따라 그 행동의 의미를 깨닫도록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법은 사고를 강조하는 인지발달이론과 외적행동을 강조하는 행동주의 이론의 한계를 극복한, 행동의 습관화(실천)와 그에 따른 지혜(사고)의 동시적 성장을 강조하는 관점이라고 해석하였다. 또한 유권중 등(간행 중)은 이러한 유교교육의 방법을 경험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로서 성리학 심성론에 근거한 심성 모델을 개발하고, 공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유교 예 교육의 효용성을 분석하였다.

반면 지금까지 유아 예절교육의 효과나 기본생활습관의 증진과 관련된 논문들에서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은 토의방법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들은 가치의 인식과 내면화를 통한 행동화를 강조하였고, 도덕적 갈등상황에 대한 토의를 주요 교육방법으로 활용하였는데, 대부분 토의방법이 관계적인 교육방법보다 유아 및 아

동의 도덕적 사고 증진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김정준, 1993; 안영진, 1998; 정재순, 1997). 또한 교육부(1996)는 유아의 도덕성 함양을 위해 집단토의를 활용하는 교사용 지침서를 개발하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교 예 교육방법인 체화방법과 지금까지 효과가 자주 입증되어 온 토의방법을 함께 비교함으로써 체화방법의 효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한편 유교적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은 위에 언급되었듯이 사고와 행동을 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단순히 반복학습에 의한 행동 자체의 변화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즉 체화방법은 행동빈도의 증가만이 아니라 행동의 자율적 실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예 교육의 효과를 검증함에 있어 해당 예절교육 내용의 행동화정도 대신 전반적인 기본생활습관정도와 일반적 자율성에 있어서의 변화를 종속변인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체화방법의 효과와 행동주의적인 반복훈련의 효과를 구분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체화방법의 효과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유아들의 경우 연령에 따른 발달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 첫째, 연령별로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 정도의 변화가 다를 수 있고, 둘째, 체화방법은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유아의 인지적 성숙 정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목적은 유교 예 교육방법인 체화방법과, 비교적 효과가 입증된 토의방법 및 기존의 관계적인 수업방법을 비교하고, 이의 연령에 따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체화방법 즉 ‘예 덕목들에

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여 예가 체화된 마음을 형성하는 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체화방법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예 교육방법에 비해 효과적인가?
 - 1-1) 체화방법으로 예 교육수업을 받은 유아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예 교

육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 1-2) 체화방법으로 예 교육수업을 받은 유아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예 교육방법으로 수업을 받은 유아의 자율성 정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체화방법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의 설계는 3(수업방법 : 체화, 토의, 관례) x 2(연령 : 만4세, 만5세)의 요인방안 설계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경북 경주시 소재 L유치원 유아 161명이었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체화집단이 54명(4세 29명, 5세 25명), 토의집단이 53명(4세 30명, 5세 23명), 관례집단이 54명(4세 29명, 5세 25명)이었다. 각 집단은 반별로 배치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이 현장성이 높아 무선배치보다는 반별 배치가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오차의 문제는 종속변인 측정 시 3회의 교사 사전교육 및 공변량분석을 통해 처리하였으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음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연구도구 및 절차

1) 예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예교육프로그램 내용은 『養正篇』과 유치원 교육과정,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선정하였다. 유교에서 아동교육의 주요 지침으로 삼는 예절교육서로 『小學』을 들 수 있는데, 愚伏(鄭經世)은 『小學』보다 더 쉽게 이해하고 몸에 익히기 좋은 아동의 예절교육 지침서로 『養正篇』을 편찬하였다. 『養正篇』은 크게 '몸과 마음을 檢束하는 예', '집안에서 부모께 효도하고 나아가 스승과 어른을 섬기고 길을 오고 갈 때의 예', '서당에서 학업을 익힐 때의 예'로 구성되어 있고 모두 28조목의 예절을 담고 있다(유권중, 1996). 본 연구에서는 양정편의 28조목과 유치원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1,2학년 교육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공통적인 내용을 추출한 후, 유아교육 현장에서 실시할 수 있는 6주간의 예 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은 바른 자세, 공손한 인사, 문안인사, 바른 말, 바른 식사 및 바른 대화이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권중 등,

간행중 참조).

2)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절차

(1) 사전검사

사전검사는 2000년 10월 16일에서 10월 28일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기본생활습관검사와 자율성검사의 2가지로 구성되었다.

두 검사는 모두 교사 관찰로 측정되었는데, 기본생활습관검사를 먼저 실시하고, 이의 수거가 끝난 후 자율성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때 교사관찰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3회의 교사 사전교육을 시행하였는데, 사전교육은 검사문항 내용의 현장 타당성 검토, 검사실시방법에 대한 이해 및 합의과정으로 구성되었다.

(2) 예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예 교육프로그램은 2000년 10월 30일(월)에

서 12월 9일(토)까지 총 6주간 실시되었다. 체화집단은 매 주 월요일 새로운 내용으로 수업 활동을 하고, 이 후의 기간동안 계속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도록 하였으며, 스티커를 통해 실천여부를 확인하였다. 이 때 스티커 사용은 실천을 위한 방안이지 강화물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여, '스티커를 받기 위해 실천을 하는' 강화물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처하였다. 토의집단은 매주 월요일 새로운 내용으로 토의수업 활동을 하고 해당 주 목요일 2차 토의를 하였다. 토의집단은 토의를 통한 가치의 인식과 내면화를 강조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모든 집단에 공통되는 교구이외에 별도의 교구도 함께 사용되었다. 관례집단은 매주 월요일 새로운 내용으로 관례적인 수업활동만을 하였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진행방식 및 사용교구는 <표 1><표 2>와 같다.

<표 1> 예 교육프로그램 진행방법

집 단	단 계	수 업 내 용
체 화	도 입	- 목표 제시 및 동기유발 :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및 파악
	전 개	- 자료제시 - 체화과정 제시 - 시범 및 실습
	정 리	- 도덕적 실천동기 부여 및 체화과정 실행 약속
	체 화	- 생각과 실천의 누적적 반복 (이전의 모든 내용 실천-매일 스티커 점검)
토 의	도 입	- 목표 제시 및 동기유발 :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및 파악 : 도덕적 문제의식 갖기
	전 개	- 자료제시 - 토의(1) : 문제사태와 관련된 규범 찾기 및 의미 알기 관련규범의 필요성과 타당성 찾기 도덕적 판단의 연습 - 토의(2) : 실천 후의 감정, 주위사람의 반응 등에 대한 토의
	정 리	- 도덕적 실천동기 부여
관 례	도 입	- 목표 제시 및 동기유발 : 도덕적 문제사태 제시 및 파악
	전 개	- 자료제시 - 시범 및 실습
	정 리	- 도덕적 실천동기 부여

〈표 2〉 예 교육프로그램 활용 교구

주	내 용	기본교구(모든 집단 공통)	토의반 별도 교구
제 1 주	바른 자세	▶바른 자세 관련사진(5 장)	▶바르지 못한 자세 그림카드(6 종)
제 2 주	공손한 인사	▶공손한 인사법 관련사진(4 장)	▶인사관련 그림카드(10 종) 및 배경판(1 종)
제 3 주	문안 인사	▶문안인사 관련사진(10 장)	▶집에서 가져온 가족사진 및 종이
제 4 주	바른 말	▶어머니, 아버지 그림카드 ▶상황단어카드(인사, 전화, 식사, 대화) 【토의반 제외】	▶테이프동화(반말쟁이 정희) 및 막대인형(5 종)
제 5 주	바른 식사	▶가족이 식사하는 사진(2 장)	▶바르지 못한 식사 그림카드(6 종)
제 6 주	바른 대화	▶비디오(유아 언어발표) 【토의반 제외】	▶비디오(유아 언어발표-바른/ 바르지 못한 발표 포함)

(3) 사후검사

사후검사는 12월 11일(월)부터 12월 20일(수)까지 실시되었다. 사후검사는 사전검사와 동일한 기본생활습관검사와 자율성검사의 2가지로 구성되었다.

(4) 추수검사

추수검사는 2001년 1월 15일(월)부터 1월 31일(수)에 걸쳐 실시되었다. 이 기간은 실험이 끝난 후 6주 제이며 이 중 약 3주간의 방학기간이 포함되어 있다. 추수검사 질문지는 연구자가 제작하였고, 담임교사에 의한 개별면담으로 실시되었다.

질서 12, 예절 14, 절제 17)이었는데, 현장 교사들의 검토를 거쳐 현재 유치원에서 측정이 가능하지 않은 4개 문항을 제외하여 총 5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검사에서 사용된 검사의 하위문항은 청결 12문항, 질서 11문항, 예절 14문항, 절제 16문항 총 53문항이었고, 사전검사 점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하위영역 및 전체 신뢰도(Cronbach α) 계수는 .75~.94 였다.

이 검사는 모두 관찰법으로 시행되며, 5단계 Likert식 평정척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평정은 행동을 자율적/타율적으로 시행하는 정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1점에 가까울수록 타율적인 행동, 5점에 가까울수록 자율적인 행동임을 나타낸다.

4. 종속변인 및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인 측정도구는 유아 기본생활습관평가 도구와 자율성평정척도 및 추수검사 질문지였다.

1) 유아 기본생활습관평가 도구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도구는 국립교육평가원(1996)에서 개발한 유아 기본생활습관평가 도구(교사용)였다. 이 검사는 모두 56문항(청결 13,

2) 일반적 자율성검사 도구

자율성 검사는 DeVries(1986)가 유아의 일반적 자율성, 사회 도덕성인지, 신체발달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한 평정척도를 문미옥(1988)이 번안한 것 중 일반적 자율성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일반적 자율성척도는 솔선성(2문항), 자신감(4문항), 독립심(5문항), 책임감(3문항), 선택능력에의 참여도(2문항)의 5개 하위요인(총16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모두 4단계 Likert식 평

정척도 형식으로 구성되었다. 평정은 점수가 높을수록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검사 대상의 사전검사 점수를 사용하여 산출한 Cronbach α 계수는 .89였다.

3) 추수검사 질문지

추수검사 질문지는 예절 지키기 내용 중 기억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하기(자유반응)와 행동 후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정도

(더 적어짐, 거의 같음, 더 많아짐, 잘 모르겠음)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질문지는 담임교사가 유아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측정하였다.

이상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SPSS PC⁺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처리되었는데, 통계분석으로는 신뢰도(Cronbach α), 공변량분석(ANCOVA)과 변량분석(ANOVA) 및 사후검증(Scheffé), 교차분석(Crosstabs)이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본 연구는 실험처치가 만 4세와 만 5세 각 반별로 실시된 관계로, 4세와 5세간에 또 반별로 사전점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결과분석은 사전검사점수를 공변인으로 하여 사후검사-사전검사 점수간의 차이점수에 대한 공변량 분석을 하였다.

1. 체화방법의 효과에 관한 분석

1) 기본생활습관평가 점수의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교사가 평정한 기본생활습관정도의 변화를 확인한 공변량분석결과는 <표 3><표 4>와 같다. 우선 <표 4>에서 보면 집단과 연령의 주효과 및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나타났다($p<.001$).

여기서 집단의 주효과 내용을 <표 3>에서 살펴보면 체화집단($M=31.81, SD=13.95$), 토의 집단($M=17.62, SD=22.30$), 관례집단($M=-3.65, SD=18.56$)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는데,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의 점수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Scheffé 검증 $p<.05$).

즉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한 집단은 예 항목에 관한 토의를 한 집단 및 관례 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토의집단은 관례집단보다 기본생활습관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따라서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는 체화 방법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방법에 비해 기본생활습관의 향상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집단 및 연령별 유아 기본생활습관평가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 령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M (SD)	M (SD)	M (SD)
만 4 세	26.41 (14.36)	1.80 (9.63)	-3.76 (21.99)
만 5 세	38.08 (10.63)	38.26 (16.31)	-3.52 (14.01)
전 체	31.81 (13.95)	17.62 (22.30)	-3.65 (18.56)

〈표 4〉 집단 및 연령간 유아 기본생활습관평가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TypeⅢ)	평균자승화	F
공변인(사전점수)	1	4357.97	4357.97	21.71***
집단	2	36685.19	18342.59	91.38***
연령	1	13319.34	13319.34	66.35***
집단*연령	2	8552.80	4276.40	21.30***
오차	154	30913.69	200.74	
전체	161	126243.00		

*** p<.001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기본생활습관평가점수의 청결, 질서, 예절, 절제의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자율성 점수의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변화된 일반적 자율성 정도의 공변량분석 결과는 <표 5><표 6>과 같다. 우선 <표 6>에서 보면 집단과 연령의

주효과 및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나타났다(p<.001).

여기서 집단의 주효과 내용을 <표 5>에서 살펴보면 체화집단(M=5.39, SD=5.69), 토의집단(M=3.66, SD=6.12), 관례집단(M=2.11, SD=3.57)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는데,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의 점수간에는 서로 부분적인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Scheffé 검증 p<.05). 즉 체화집단

〈표 5〉 집단 및 연령별 일반적 자율성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M (SD)	M (SD)	M (SD)
만 4 세	3.79 (6.67)	-0.23 (4.41)	3.03 (3.29)
만 5 세	7.24 (3.62)	8.74 (3.92)	1.04 (3.66)
전체	5.39 (5.69)	3.66 (6.12)	2.11 (3.57)

〈표 6〉 집단 및 연령간 일반적 자율성점수의 공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TypeⅢ)	평균자승화	F
공변인(사전점수)	1	546.49	546.49	33.15***
집단	2	343.96	171.98	10.43***
연령	1	825.22	825.22	50.06***
집단*연령	2	598.98	299.49	18.17***
오차	154	2538.56	16.48	
전체	161	6865.00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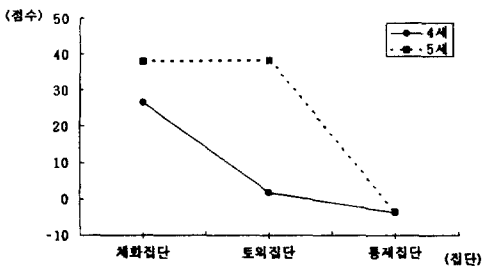
과 토의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토의집단과 관례집단 역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화집단과 관례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한 집단은 관례적인 수업활동만 한 집단보다 자율성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는 체화방법은 관례적인 방법에 비해 자율성의 증진에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2. 체화방법 효과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분석

1) 기본생활습관평가 점수의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교사가 평정한 기본생활습관정도의 변화를 확인한 공변량분석결과(<표 3><표 4> 참조)에서는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p<.001$). 여기서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표 3> 및 <그림 1>을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 집단 및 연령별 유아기본생활습관평가점수의 평균비교

우선 4세의 경우 체화집단($M=26.41$, $SD=14.36$)의 점수만이 토의집단($M=1.80$, $SD=9.63$) 및 관례집단($M=-3.76$, $SD=21.99$)에 비해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Scheffé 검증 $p<.05$). 그러나 5세의 경우는 체화집단($M=38.08$, $SD=10.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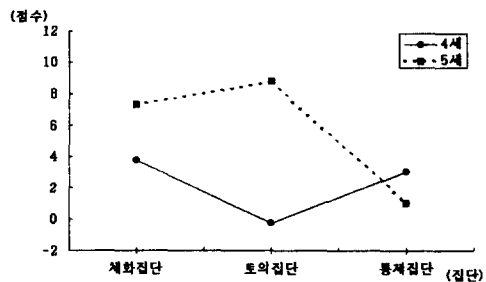
과 토의집단($M=38.26$, $SD=16.31$)이 관례집단($M=-3.52$, $SD=14.01$)에 비해 평균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Scheffé 검증 $p<.05$).

즉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한 집단은 예 항목에 관련된 기존의 수업활동만 한 관례집단에 비해 4세와 5세 모두 기본생활습관 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나, 예 항목에 관한 토의를 한 집단은 5세의 경우에만 관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향상을 보였다. 반면 예 항목에 관한 관례적인 수업활동만 하는 것은 모든 연령에서 기본생활습관의 향상에 기여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가지 수업방법 중 체화집단과 토의집단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향성은 기본생활습관평가점사의 청결, 질서, 예절, 절제의 4개 하위영역 모두에서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반적 자율성 점수의 분석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교사가 평정한 유아의 일반적 자율성 정도에서의 변화를 확인한 공변량분석 결과에서(<표 5><표 6> 참조)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p<.001$), 이 상호작용효과를 <표 5> 및 <그림 2>를 통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집단 및 연령별 일반적 자율성점수의 평균비교

우선 4세의 경우 체화집단(M=3.79, SD=6.67)과 관례집단(M=3.03, SD=3.29)의 점수가 유사했고 토의집단(M=-0.23, SD=4.41)의 점수가 이보다 낮게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체화집단과 통제집단의 점수가 토의집단보다 유의한 수준에서 높았다(Scheffé 검증 $p<.05$). 즉 토의집단의 자율성 정도가 관례집단보다도 낮았다. 반면 5세의 경우는 토의집단(M=8.74, SD=3.92), 체화집단(M=7.24, SD=3.62), 관례집단(M=1.04, SD=3.66)의 순서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사후검증 결과 체화집단과 토의집단의 점수는 유사했고, 이 두 집단의 점수가 관례집단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effé 검증 $p<.05$).

따라서 5세의 경우는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거나 예 항목에 관한 토의를 하는 것이, 관례적인 수업만 하는 것보다 일반적 자율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4세의 경우는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의 병행이나 예 항목에 관한 토의가 관례적인 수업활동에 비해 유의하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세가지 수업방법의 효과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추수검사 분석

1) 예 교육프로그램 하위내용 회상 정도
 예 교육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6주 째(3주의 방학기간 포함), 유아들이 프로그램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의 회상 개수에 대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는데(<표 7><표 8> 참조, 집단간($p<.001$), 연령간($p<.01$) 주효과와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p<.01$)가 모두 나타났다.

<표 7>에서 우선 집단간 주효과를 살펴보면, 체화집단(M=3.89, SD=1.08), 토의집단(M=3.21, SD=1.08), 관례집단(M=2.02, SD=1.25)의 순서로 점수가 높았는데, 사후검증 결과 세 집단이 유의한 수준에서 서로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Scheffé 검증 $p<.05$).

즉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한 집단은 토의집단 및 관례집단보다 6주 후 프로그램 내용을 회상하는 정도가 더 높았다. 또 토의집단은 관례집단보다 프로그램 내용의 회상 빈도가 더 높았다. 따라서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는 체화방법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방법에 비해 6주 후 프로그램의 내용을 더 잘 기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집단*연령의 상호작용효과를 <표 7> 및 <그림 3>을 통해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4세의 경우는 체화집단(M=4.03, SD=1.05), 토의집단(M=2.83, SD=0.95), 관례집단(M=1.55, SD=1.27)의 순서로 회상빈도가 높게 나타났다(Scheffé 검증 $p<.05$). 그러나 5세의 경우는 체화집단(M=3.72, SD=1.10)과 토의집단(M=3.70, SD=1.06)의 회상빈도가 관례집단(M=2.56, SD=1.00)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Scheffé 검증 $p<.05$).

즉 예절에 관한 생각과 행동을 병행한 체화집단 및 예절에 관해 토의를 한 토의집단은 관례적인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4세와 5세 모두 6주 째 프로그램 내용을 회상하는 정도가 높았다. 그리고 4세의 경우는 체화집단이 토의집단에 비해 회상정도가 더 높은 반면 5세의 경우는 두 집단간에 회상정도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세가지 수업방법 중 체화집단과 토의집단의 회상정도는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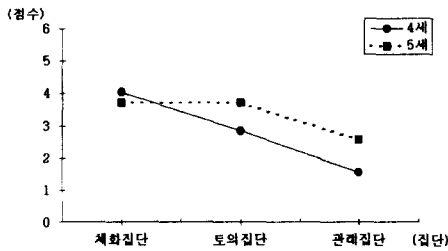
〈표 7〉 집단 및 연령별 예 교육프로그램 하위내용 회상 개수의 평균과 표준편차

연 령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M (SD)	M (SD)	M (SD)
만 4 세	4.03 (1.05)	2.83 (0.95)	1.55 (1.27)
만 5 세	3.72 (1.10)	3.70 (1.06)	2.56 (1.00)
전 체	3.89 (1.08)	3.21 (1.08)	2.02 (1.25)

〈표 8〉 집단 및 연령간 예 교육프로그램 하위내용 회상 개수의 변량분석 결과

변량원	자유도	자승화(Type III)	평균자승화	F
집 단	2	92.19	46.10	39.61***
연 령	1	10.73	10.73	9.22**
집단*연령	2	14.08	7.04	6.05**
오 차	155	180.37	1.16	
전 체	161	1787.00		

*** p<.001, ** p<.01



〈그림 3〉 집단 및 연령별 예 교육프로그램 하위내용 회상 개수의 평균비교

2)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변화 정도

예 교육프로그램 종결 후 6주 짜(3주간의 방학기간 포함) 유아들에게 예 교육을 받기 전과 받은 후 부모님/선생님을 공경(감사, 사랑 혹은 배려/생각)하는 마음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확인한 결과가 <표 9>에 제시되어 있다.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의 순서로 공경하는 마음이 더 많아졌다(p<01).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세의 경우는 체화집단이 토의집단과 관례집단보다 유의하게 공경하는 마음이 많아졌고, 토의집단과 관례집단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다(p<01). 그러나 5세의 경우는 토의집단이 공경하는 마음이 가장 높아졌고, 체화집단, 관례집단의 순서로 나타났다(p<01).

즉 예 항목에 관한 생각과 실천을 병행한 체화집단은 예 항목에 관한 관례적인 수업을 받은 집단에 비해 4세와 5세 모두 공경하는 마음이 많아졌다. 그러나 토의집단은 5세의 경우는 공경하는 마음이 관례집단보다 월등히 더 많아진 반면, 4세의 경우는 공경하는 마음이 관례집단과 유사함을 알 수 있다.

〈표 9〉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정도에 대한 교차분석 () = %

정도	만 4 세			만 5 세			전 체			계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체화집단	토의집단	관례집단	
더 적어짐						1 (4.0)			1 (1.9)	1 (0.6)
거의 같음	4 (13.8)	16 (53.3)	13 (44.8)	4 (16.0)	2 (8.7)	13 (52.0)	8 (14.8)	18 (34.0)	26 (48.1)	52 (32.3)
더 많아짐	25 (86.2)	14 (46.7)	14 (48.3)	19 (76.0)	21 (91.3)	11 (44.0)	44 (81.5)	35 (66.0)	25 (46.3)	104 (64.6)
잘 모르겠음			2 (6.9)	2 (8.0)			2 (3.7)		2 (3.7)	4 (2.5)
계	29 (100.0)	30 (100.0)	29 (100.0)	25 (100.0)	23 (100.0)	25 (100.0)	54 (100.0)	53 (100.0)	54 (100.0)	161 (100.0)
유의도	$\chi^2=15.69^{**}$ df=4			$\chi^2=19.90^{**}$ df=6			$\chi^2=18.50^{**}$ df=6			

** p<.0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들을 중심으로 논의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체화방법의 효과에 관한 분석 결과 체화방법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방법에 비해 기본생활습관의 증진에 효과적임이 밝혀졌고, 관례적인 방법에 비해 자율성 증진에 효과적임이 밝혀졌다. 이 점은 추수분석에서 체화방법이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수업방법에 비해 프로그램 하위내용의 회상정도 및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정도가 높게 나온 결과를 통해서도 지지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체화방법은 토의방법 및 관례적인 예 교육방법에 비해 효과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는 유교적 심성론에 근거한 예 교육방법인 체화방법 즉 생각과 행동을 병행하는 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 증진에

효과적임을 의미하며, 따라서 유교 예 교육방법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유교 예 교육을 직접 다룬 연구들은 대부분 기존 문헌을 토대로 당위적으로 긍정적인 담론을 제시한 것들이다(이건인·송순, 1994; 장성모 외, 1998; 최경순, 1997). 물론 오랜 시간에 걸쳐 비 형식적인 교육으로 실행되어 오면서 유교적 교육방법의 가치와 효과가 예측될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유교 예 교육방법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한 연구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볼 때,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 있으며 앞으로 새로운 연구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본다.

한편 지금까지 도덕성이나 예 교육에 관해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들은 상당수가 인지발달 이론에 근거하였는데, 연구방법은 주로 갈등상

황에 대한 토의였고, 토의방법이 유아의 예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결과들이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교육부, 1996; 안영진, 1998; 정재순, 1997). 본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착안하여 유교 예 교육방법을 토의방법 및 관계적인 수업방법과 함께 비교함으로써 유교 예 교육방법의 효과를 보다 분명하게 확인하고자 시도하였는데, 연구 결과 체화방법은 만 5세에서는 토의방법과 동등한, 만 4세의 경우는 토의방법보다 더 나은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종속변인인 기본생활습관검사와 일반적 자율성 검사는 단순한 행동빈도의 측정이기 보다는 그러한 행동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하는가에 초점을 두는 방법이다. 따라서 체화방법의 효과는 단순한 반복의 효과를 넘어서는 결과라 볼 수 있다. 즉 체화방법은 행동빈도의 증가만이 아니라 행동의 자율적 실천에 도움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체화방법은 특히 가치가 있다고 본다.

둘째, 체화방법 효과의 연령별 차이에 관한 분석 결과 세 방법간에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다. 즉 만 5세의 경우 성리학 심성모델에 근거한 체화방법을 사용한 유교 예 교육방법은 관계적인 수업방법보다 기본생활습관과 자율성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효과의 정도는 토의방법의 효과와 유사했다. 만 4세의 경우는 체화방법이 토의방법이나 기존의 수업방법보다 기본생활습관과 자율성 증진에 대체로 효과적이며, 특히 토의방법보다도 유의한 수준에서 효과가 있었다. 이 점은 추수분석에서 프로그램 하위내용의 회상정도 및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정도에서도 확인되었다.

즉 체화방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효과가 있었던 반면, 토의방법은 만 4세의 경우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토의

방법이 연령에 따른 인지적 발달수준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데 비해, 유교 예 교육방법은 연령의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라고 추론해 볼 수 있고, 따라서 인지능력의 발달이 선행되어야 하는 토의방법보다 유용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인지발달과 관련된 연구들은 연령 증가에 따라 인지나 도덕성 발달단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는 경우는 최소한 초등학교 이상을 기준으로 한다(문경상·나귀옥, 1994; 안영진, 1998). 이는 갈등상황에 대한 추론의 경우 유아기는 가장 낮은 단계로 함께 묶여서 취급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토의 집단의 경우 만 4세와 만 5세간에 기본생활습관의 향상정도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것은 유아들은 인지능력이 전체적으로 제한되지만 동시에 연령간 발달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 토의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이 점은 유아들의 연령단계를 구분하여 진행되는 다양한 추후연구들을 통해 좀 더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에서 유교 심성론에 근거한 유아 예 교육방법의 효과를 분석하고 논의하였는데, 이 논의 외에 본 연구가 가지는 부수적인 의의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예 교육프로그램 내용선정에서, 17세기 조선시대 영남지역 퇴계학파의 연원에서 배출한 예학자 愚伏(鄭經世)이 아동의 예절교육서로 편찬한 『養正篇』의 내용과 유치원 교육과정 및 초등학교 1, 2학년의 교육과정을 비교 분석하여 유교의 예 교육내용을 포함시킨 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점은 본 연구의 의의로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유치원에서의 기본생활습관 항목

은 청결, 질서, 예절, 절제의 4개 영역구성이 관련였고(국립교육평가원, 1996), 그 중 예절은 가정생활, 집단생활, 국가에 대한 예절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유교의 예 교육내용과 유치원, 초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유교의 예 교육내용과 우리나라의 현 교육과정 내용이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에 있음을 밝혔고, 예 하위항목을 구성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우리의 제도교육은 유교적 전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유교적인 교육내용들이 현재의 교육 속에서도 함께 다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실험 종료 후 6주 째(3주의 방학기간 포함) 실시한 추수검사에서 예 교육프로그램 하위내용을 회상하는 정도와 예 교육프로그램 실시 후 부모님/선생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변화정도를 측정하여, 체화집단의 유아들이 토의집단이나 관계집단에 비해 예 교육 내용을 보다 많이 기억하고 있고, 또한 부모님/선생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 좀 더 많아졌다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유교에서 예 교육을 통해 인격을 형성한다는 것은 예 교육이 心身 양면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 성리학자들은 일찍부터 이 점에 주목하여 예를 학습하거나 실천하는 修身에 노력하는 동시에, 그 변화의 원리를 理氣論과 心性論 등으로 탐구하고 心의 구조와 작용을 圖解하여 인격형성의 원리를 쉽

게 표명하고자 시도하였다(윤사순, 1997). 본 연구진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성리학적 도덕 심성모델을 구축하고 이것을 경험적 연구 및 공학적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검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유권중 등, 간행 중 참조). 본 연구는 유교 예 교육에서 중시된 체화방법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및 자율성에 미치는 효과 즉 과정이 아니라 결과를 분석하였지만, 추수검사를 통해 성리학적 도덕 심성모델의 진행과정에 일부 포함되어질 수 있는 부분들, 즉 기억(念, 慮, 憶) 및 四端이 發出되어 관련된 모든 요소가 이를 중심으로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게 되는 과정(恭敬하는 마음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얻게 되었다. 앞으로 이 단서를 토대로 하여 생각과 행동이 진행되어 가는 순서 및 순환과정 등 성리학적 도덕 심성모델의 전체 과정을 측정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이 과정의 각 시점에서 아동의 내면적인 상태를 측정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유교 예 교육방법인 생각과 실천을 병행하는 체화방법이 유아의 예 교육방법으로 효과적임을 입증했다는 데 가장 큰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예 교육프로그램의 실시기간이 6주로 단기간에 걸친 효과라는 제한점을 갖는다. 따라서 앞으로 보다 장기간에 걸친 프로그램의 실시를 통해 체화방법의 효과를 검증한 후, 유아교육 기관이나 초등학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구체화된 유교 예 교육 활동프로그램으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교육부(1998). 유치원 교육과정 해설.

교육부(1998). 초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II) - 우리

- 들은 1학년,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특별 활동 - .
- 교육부(1996). 유아 도덕성 함양을 위한 토의자료.
- 국립교육평가원(1996). 유치원 교육평가 - 기본생활 습관 평가연구/세계의 유아교육 비교연구-.
- 김정준(1993). 가설적 갈등상황의 토의가 유아의 도덕적 추론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경상·나귀옥(1994). 인지적 도덕발달이론의 단계 이행과정에 대한 분석. 순천향대학교논문집, 17 (1), 357-366.
- 문미옥(1988). 구성주의 유아교육과정의 효과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문미옥·류칠선(2000). 소학에 나타난 아동교육론. 아동학회지, 21(1), 한국 아동학회, 215- 234.
- 안영진(1998). 갈등상황 토론학습이 아동의 도덕적 추론능력과 조망수용능력에 미치는 효과.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권종(1996). 愚伏의 禮學思想. 愚伏鄭經世先生研究. 愚伏先生紀念事業會.
- 유권종·강혜원·박충식(간행중). 성리학 심성모델 시물레이션을 이용한 유교 예 교육 효용성 분석.
- 유권종·박충식(2000). 퇴계학, 구성주의, 인공지능 : 도덕 심성모델의 새로운 시도. 제13회 한국철학자연합대회 : 21세기를 향한 철학의 화두-인간·사회·자연에 관한 새로운 성찰(대회보 3), 철학연구회주관 한국철학자연합대회, 2000. 11. 23~25.
- 윤사순(1997). 한국유학사상론. 예문서원.
- 이건인·송순(1994). 유교 아동교육의 현대적 조명. 원광대학교논문집, 28, 293-317.
- 이경무(1999). 도덕·윤리과 교육의 목표 및 내용과 한국전통사상-도덕·윤리과 교육에 있어서 한국전통사상의 위상과 역할(2)-. 서원대학교교육대학원 교육논총, 3, 257-277.
- 장성모 외(1998). 인성교육의 동양적 전통과 초등 도덕교육.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교과교육공동연구소 연구보고 RR 96- I -1, 1-36.
- 정재순(1997). 기본생활습관 교육을 위한 토의 교수 전략이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순(1997). 아동발달에 따른 전통'효'가치관 및 양육실제. 부산여자대학교 자연과학연구소논문집, 3, 139-163.
- 한덕용(1994). 퇴계심리학-성격 및 사회 심리학적 접근.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허버트 핑가레트(저) 송영배(역)(1993). 공자의 철학. 서광사.
- 愚伏集.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影印本. 論語.
- Varela, F.(1999). *Ethical Know-How*. Stanford University Press.